



김용건

39세 연하 연인에게 임신 중절 강요

“임신 사실 당황, 출산 반대 인정
건강한 출산·양육 최선 다할 것”
A씨측 “진심어린 사과한적 없어”

배우 김용건(75)이 연인관계로 알려진 39세 연하의 여성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김용건은 이날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가에 따르면 김용건과 현재 임신 6개월째인 A씨(36)는 2008년부터 13년 동안 교제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A씨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김용건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갈등해왔다. 이후 A씨는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7월24일 김용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

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김용건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김용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다.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며 “(A씨에게)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며 출산을 반대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5월21일부터 김용건과 연락을 끊고, 법적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건은 “늦었지만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5월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용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아리울의 임방글 변호사는 스포츠동아에 “김용건이 지난달까지 상대방에게 출산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자

를 몇 차례 보냈고, 둘째아들도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같은 의견을 전했으나 A씨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여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강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A씨는 출산 의지가 강하고, (김용건과)대화를 차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도)고소한 것은 진심인지 여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건은 1967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MBC ‘전원일기’ ‘제5공화국’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최근에는 MBC ‘나 혼자 산다’,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뜻밖의 커플’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나섰다. 전 부인과 1977년 결혼해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차현우(김영훈) 두 아들을 뒀고, 1996년 이혼했다. 유자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준·조이현·이찬형·김강민 슬의생 키즈 인기 심상치않네



김준

‘우주’ ‘윤복이’ ‘성영 쌤’ ‘창민 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슬의생2)의 주연인 ‘99즈’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인들이 있다. 최근 13.2%(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돌파하면서 아역 김준을 비롯해 조이현, 이찬형, 김강민 등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극중 조정석의 아들 우주 역을 맡은 김준은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 ‘활력소’로 꼽히고 있다. 7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톱 부러진 매력에 돋보이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매미가 탈피할 때 되면 캠퍼 가자”면서 어려운 단어도 거침없이 쓰는 통에 의사 아빠인 조정석도 깜짝 놀랄 정도다.

실제로도 귀여운 외모와 아무진 말투로 배우와 스태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촬영 현장을 담은 ‘메이킹 영상’ 중 김준이 등장하는 영상들은 모두 유튜브에서 2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기면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광고계에서도 ‘러브 폴’을 받아 어린이용 의료, 로션, 과자 제품의 광고를 연달아 찍었다.

인턴 장윤복 역을 맡은 조이현은 시즌2에 이어 이번에도 올제병원에 남게 됐다.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탐내는 인재이지만, 아직 병원 생활에는 다소 서툰 ‘사회초년생’의 비애를 고스란히 드러내 공감을 얻고 있다. ‘슬의생’ 시리즈로 방송가 안팎에서 눈도장을 찍은 덕분에 차기작도 벌써 정했다. 연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과 KBS 2TV ‘학교 2021’의 주연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최성영 역의 이찬형, 흉부외과 레지던트 임창민 역을 맡은 김강민도 떠오르는 ‘슬의생 키즈’이다. 시즌2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들은 최근 들어 전미도, 정경호 등 주요 캐릭터들과 연관 지어 등장하면서 새삼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들이 과거 출연한 웹드라마 장면들을 묶어 소개한 게시물들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진흙탕 연애담’ ‘나의 별에게’ 등의 주연을 맡는 등 웹드라마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10대 시청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하다. 유자혜 기자

시원하게 혹은 섬뜩하게…서머 송 vs 호러 송

연일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시장을 공략하는 가수들이 저마다 불발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비장의 무기를 들고 돌아온다.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에 따라 중독성 강한 댄스곡 위주의 ‘서머 송’은 물론 으스스한 분위기를 살린 이른바 ‘호러 송’으로 틈새를 노린다. 좀비를 내세워 한편의 공포영화를 연상케 하는 뮤직비디오는 기본이고, 오컬트 콘셉트를 강조하는 멜로디까지 각양각색이다.

●여름의 히트 공식…‘서머 송’

무더위가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여름철 특수를 겨냥한 서머 송은 계속되고 있다. 브레이브걸스의 ‘나혼자 여름’을 비롯해 핫팬츠의 ‘서머타임’, 애플티스쿨 레이나라와 산이가 함께 부른 ‘한여름 밤의 꿈’ 등이 폭염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다.

뒤이어 ‘화룡점정’격인 레드벨벳이 16일 2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이날 새 미니앨범 ‘퀸덤’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이들은 앞서 여름 히트곡 대열에 오른 ‘빨간 맛’, ‘파워 업’, ‘음파음파’ 등을 잇겠다는 각오다. 2019년 12월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이후 처음 선보이는 앨범에는 트레이드마크인 여름 분위기를 살린 곡 등 모두 6곡을 담았다.

평균 나이 18세의 걸그룹 위클리도 자신들의 매력을 살려 ‘서머 하이틴’ 콘셉트를

브레이브걸스



내세웠다. 4일 네 번째 미니앨범 ‘플레이 게임:홀리데이’를 발표하는 이들은 특유의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강조하면서 앨범 주요 콘셉트에 따라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이야기를 선보인다.

●좀비, 섬뜩+오싹한 멜로디…‘호러 송’

‘댄스 퀸’의 대표주자인 전미도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리블리한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그는 6일 발표하는 미니앨범 ‘1/6’을 통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타이틀곡 ‘유 캔트 시트 위드 어스’(YOU CAN’T SIT WITH US)의 경쾌한 멜로

디는 뜨거운 여름과 잘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뮤직비디오에서는 반전의 매력을 선보인다. 최근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 비명을 지르며 시선을 끌었던 그는 좀비와 총격신 등 과격적인 액션 장면을 선보인다.

걸그룹 드림캐처는 최근 발표한 스페셜 미니앨범 ‘서머 홀리데이’를 통해 오컬트 콘셉트를 내세워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오컬트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규명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악령이나 영혼, 초능력 등을 일컫는다. 타이틀곡 ‘비코즈’(BECAUSE)는 손가락으로 뽀기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한 현악기와 오르골 소리가 어우러지며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드림캐처



드림캐처는 뮤직비디오에서도 검은색 망토를 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인형을 안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담아 공포영화 같은 장면을 선보였다. 이들은 “서머 송과 차별화하는 강점으로 ‘청량감’이 아닌 무섭고 때론 ‘청양’감을 내세웠다”면서 “시원하고 서늘함을 잠시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가수 안예은이 최근 선보인 ‘창귀’도 곡 제목에서부터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혼을 뜻하는 말로, 지난해 발표한 ‘능소화’에 이어 두 번째 선보이는 ‘호러 송’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모가디슈’ 첫 주 78만 관객…실화 영화의 힘

코로나19 상황 100만 가까운 관객
한정된 자료에 극적 요소 더해 완성

‘모가디슈’가 실화 영화의 힘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가 입소문을 얻으며 흥행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7월28일 개봉한 영화는 첫 주말인 1일까지 전국 누적 78만8000여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전국 극장의 절반가량이 물린 수도권에서는 감염병 사태로 밤 10시까지만 극장이 영업할 수 있어 20%가량 관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에 버금가는 수치라 할

만하다. 특히 토요일 하루 21만여명을 동원한 뒤 일요일인 1일 24만1000여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통상적으로 일요일보다 토요일 하루 관객수가 더 많은 상황과는 다른, 이례적인 추이를 나타냈다. 그만큼 관객 입소문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실제 벌어졌던 이야기를 영상화하면서 더욱 극적인 재미를 얻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가디슈’는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정부군과 무장세력이 벌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참혹한 전쟁의 위기 속에 고립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목숨을 건 탈출기를 실화를 기반으로 재구성했다.

제작진은 실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



모가디슈

슈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를 찾아 나서 모로코의 도시 예사우이라를 촬영장소로 정했다.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지 로케이션하며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오디션을 통해 흑인 배우들을 대거 기용했다.

문제는 30여 년 전 사건을 모티브 삼은 만큼 더욱 사실적인 상황을 그려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관련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제작진은 소말리아 국영방송의 한 간

부가 쓴 탈출기와 기밀 해제된 미국 대사관의 공식 기록 등 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완성한 이야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실화 기반 영화가 흥행해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남산의 부장들’(2020년), ‘공작’(2018년), ‘택시운전사’·‘1987’·‘범죄도시’(이상 2017년) 등 역사적 사실이나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화한 이야기가 대부분 관객의 지지를 얻어왔다.

‘모가디슈’를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고 관련 사건에 대해 취재한 연출자 류승완 감독은 “그 과정에서 훨씬 풍부한 사건들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듯이 알고 있던 사건에 대해 조사된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극적 인물들에 매료됐다”면서 실제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적 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31일 문 닫는 서울극장, 선착순 무료 티켓 제공

31일 문을 닫는 서울극장이 관객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서울극장은 11일부터 31일까지 ‘고맙습니다 상영회’를 열고 하루 제한된 인원에게 선착순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 서울극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영화관으로 40여 년 동안 관객을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 ‘모가디슈’와 ‘인질’ 등 최근작부터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휴먼 보이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 로버트 레드포드 연출·브래드 피트 주연 ‘호르는 강물처럼’ 등을 상영한다. 서울극장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신·선미·이무진, 뮤직카우 광고모델 선정

가수 윤종신과 선미, 이무진이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2일 뮤직카우는 이들이 출연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뮤직카우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음악의 저작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들을 모델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90년대 감성부터 다양한 장르에 걸친 음악적 색깔을 과시해왔다. 윤종신은 대표곡 ‘좋은 날’을 이달 중 뮤직카우 플랫폼의 육선 코너에서 공개한다.

엠넷, 프로듀스 조작 의혹 피해자 보상 진행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의혹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다. 엠넷은 2일 “피해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 12인 중 11인에 대해 피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과도 협의 중이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의 안모 PD와 책임프로듀서 김모 PD 등은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엠넷은 관련 피해자 12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